

◆ 會員社 動靜 ◆

LG産電(株), 초소형 배선용차단기 이스라엘 수출

LG産電(株)(代表:李鍾秀)의 배선용차단기(MCB) BKM Series 36개 제품이 국내최초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1차 수출분 2억원의 주문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출 활동에 들어갔다.

LG산전은 그동안 배선용차단기의 이스라엘 수출을 위하여 지난 3월 국내최초로 이스라엘 형식 승인 규격을 획득함과 동시에 금년도 이스라엘 전체시장(약 100억원)의 10%인 10억원을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수출하게된 배선용차단기는 국내 KS마크 획득은 물론 국제표준규격과 영국 규격등 여러가지 국제규격 획득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특히 배선용차단기 BKM Series 36개 제품중 극소용량인 1~6A까지의 제품은 기존제품이 10A(암페어)부터 생산되어 극소용량을 필요로하는 공작기계의 제어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던 단점을 해소한 제품으로 현재 공작기계 제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로보호기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함은 물론 가격을 절반수준으로 하여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번제품은 기존 배선용차단기의 결합방식이 나사(Bolt)결합방식으로 제품의 고장시 나사를 풀고·조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딘레일(DIN-RAIL)결합방식을 채택함과 동시에 크기와 중량을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분전반용 차단기와 비교하여 30% 축소된 초소형을 실현하여 분전반 설치시 최적화를 이루게 하였다.

이외에도 기존제품이 이상전류가 흘러도 서서히 차단해 주는 바이메탈에 의한 한시특성만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이번제품은 한시특성은 물론 이상전류가 흐를시 순간적으로 차단해 주는 전자식 마그네틱에 의한 순시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순간적인 이상전류가 흐르게 되어도 부하단의 제품을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 화재등 또다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차단용량은 기존제품이 최대 1.5kA까지 차단해 주는데 비하여 이번제품은 약 7배가 향상된 10kA까지 차단할 수 있게 하여 단락사고나 순간적인 외부이상전류가 흐르게 되어도 신속히 차단해 부하단의 제품을 보호하게 하였다.

한편 LG산전은 이번제품을 이스라엘 뿐만아니라 동남아지역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연간 15억원의 매출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株)光明電機, 홍콩법인 설립

수배전반 전문업체인 (株)光明電機(代表:金榮澤)는 최근 홍콩에 9백만달러 규모의 자본금으로 「光明일렉트릭홍콩」이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 현지법인은 현지의 낮은 금리를 이용한 중계무역을 통해 그동안 광명전기가 독일로부터 원부자재를 국내로 수입해오던 업무를 담당기로 했다. 또 국내 완제품을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등 해외 신규시장을 개척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되는 이 현지법인이 원부자재를 국내에 들여오는 규모는 1차연도에 2천만달러이고 2차, 3차연도에 각각 3천만달러, 4천5백만달러이다. 또 완제품 수출의 경우 2차연도에 3백만달러, 3차연도에 5백만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전기는 국내 수배저반 생산설비를 점차 빌딩자동화시스템과 UPS(무정전전원장치)등 고부가가치분야로 변경하고 현재 운영중인 설비를 해외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LG電線(株), 통신케이블용 열수축 슬리브 수출

LG電線(株)(代表:權炆久)는 그동안 외국 선진업체가 독점하고 있던 통신케이블용 열수축슬리브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국과 인도에 수출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LG전선이 이번에 수출하는 열수축슬리브는 총 100만달러 규모로 중국의 광동성과 인도의 체신청(Department of Telecom)에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모두 3개월에 걸쳐 선적을 마칠 예정이다. 열수축슬리브(Heat Shrinkable Sleeve)는 열을 가하면 수축하는 材質의 특성을 이용해 통신케이블의 단면과 단면을 이어주는 접속관으로 국산 제품이 외국에 수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통신케이블용 열수축 슬리브는 미국의 레이캠(Raychem)社가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왔는데 이번에 LG전선이 독자 모델 개발에 성공해 세계 특허 등록을 얻음으로써 세계시장 점유율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선은 태국, 인도 등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 이집트와 사우디,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계획인데, 내년까지 500만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선은 또 통신망 공사를 재료부터 포설, 공사, 유지관리까지 턴키베이스로 수주할 수 있게 돼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大延電子(株),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가

전력용 보호계전기 전문 생산 업체인 大延電子(株)(代表:鄭冀浩)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1996년 4월 3일 대연전자(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을 받았다. 이로써 대연전자(주)는 21C를 향한 첨단 제품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기업 매출이 매년 급신장하고 있는 동사는 매출액의 10%를 연구 개발에 재 투자하고 있으며, 이번 부설 연구소 설립을 위해 첨단 전력용 보호계전기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시험 장비의 구입과 함께 고급 전문 연구 인력을 대폭 강화하여 최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첨단 전력용 보호계전기의 국산화로 국가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東明機電工業(株), ISO 9002 인증 획득

東明機電工業(株)(代表:姜根熙)는 한국능률협회 품질인증센터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하였다.

동사는 1980년에 설립, 수·배전반, 자동제어반 및 판금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95년 8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망선전기술 중소기업(통상산업부)에 선정되는 등 품질경쟁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번 ISO 인증 획득을 계기로 동명기전 전 임직원은 끊임없는 품질개선 노력과 품질보정으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